

사랑의 온도탑 96도...불황에도 온정 뜨겁다



16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위치한 희망2017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수온수가 96도를 가리키고 있다. 캠페인 57일째에 접어든 이날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도가 오르고 모금액도 6억6200만원이 증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1**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12월2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바나운 어린이 손님들이 방문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서광지역아동센터 10여명. 아이들은 군것질 비용으로 받은 용돈 500원 가운데 100원을 남겨 돼지저금통의 배를 불렀다. 또 다 풀고 난 학습지를 폐지로 팔아 또 돼지의 배를 불렀다. 아이들은 이렇게 1년간 모은 돼지저금통을 모금회에 내었다. 86만1720원이었다.
- #2** 북구 수곡동 전원어린이집 아이들은 청소·신발정리 등 집안일을 돕거나 부모에게 안마해주기, 동생 돌보기 등으로 받은 용돈을 한푼두푼 모아 21만4000원을 보내왔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20곳에서 총 532만원을, 양화경로당 등 29개 경로당에서 449만원을 기부했다.
- #3** 등산복을 입은 익명의 70대 할아버지는 봉투를 하나 건네고 갔다. 5만원 짜리 20장이었다. 이를 밝히기를 거부한 할아버지는 “기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광주 40억8101만원·전남 77억9100만원 모금

개인 기부 증가 눈길...2만7431명 21억9천만원

16일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 겨울 경기침체와 한파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웃돕기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은 역대 최대를 향하고 있다. 모금은 이날 31일까지 계속한다.

지난해 100도를 여유있게 넘겨며 역대 최대 모금액인 41억8600만원을 달성했던 광주는 올해도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 모금 57일째인 이날 96도를 기록, 모금액이 40억8101만원을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도가 오르고 모금액은 6억6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면 마감까지 목표액 42억5000만원을 훌쩍 넘겨 6년 연속 100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이날 현재 온도탑의 온도는 95.4도, 모금액은 77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여유있게 100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은 모금시작 후 57일째까지 84.4도 온도에 67억800만원 모금에 그치는 등 저조한 관심 속에서 마지막 한걸음 100도를 넘겼다.

특히 올해는 개인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면서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식지않는 이웃사랑을 보여줬다.

광주는 16일 현재까지 개인 기부자는 2만2144명으로 기부금액은 12억9800만원에 달해 개인기부가 전체 기부중 32%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부자는 1만5287명, 기부금액은 8억9680만원으로 전체 비율 중 26%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개인 기부자는 6857명이 늘고 개인기부는 6%로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현재까지 2만3714명의 개인기부자가 19억4000만원을 기부해 전체기부 중 개인기부가 24%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개인 2만7222명이 12억8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전체기부 중 개인기부가 19%로 차지 올해는 개인기부자는 3508명이 줄었지만 오히려 금액은 6억1900만원 늘어 전남의 경우는 개인 고액기부자가 늘어났음을 나타냈다.

김상곤(55)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여수선한 겨울이었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광주시민의 뜨거운 이웃 사랑은 식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개인 기부자가 많아 보람됐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장 인적쇄신

시, 9명 중 7명 사표 수리

2명은 임기 1~2달 남아 반려

광주시는 16일 윤장현 시장의 인적쇄신 방침<광주일보 1월 5·6일자 2면>에 따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산하 공공기관장 9명 가운데 2명은 반려하고 7명은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표가 반려된 2명도 임기를 1~2달 남짓 남겨둔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공공기관장 전원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는 평가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사표를 낸 9개 기관장 중 7명에 대한 사표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물러나는 공공기관장은 조웅준 광주도시공사 사장, 정선수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춘문 교통약자이동센터 본부장,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7명이다.

반면, 임기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김농재 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과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본부장은 사실상 사표의 의미가 없는 만큼 반려했다.

잔여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이춘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과 유재신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본인들이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7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체제 이후 취임한 이들 단체장은 임기가 2~3년으로 올 연말 끝난다.

윤 시장의 인적쇄신은 지난해 10월,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 등 인척비리로 촉발된 비서관장 등 정부라인 정리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시장은 이번 조치에 앞서 조직 내 직원과 불협화음을 자초한 광주교통

문화연수원장을 전격 물러나게 하는 등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고강도 인적쇄신은 민선 6기 출범 뒤 발목을 잡았던 공공기관장의 보은·측근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또 후임 인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한 인척비리의 명에도 털어 내려는 의도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시정 비전과 과제로 꼽은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 최근 불타오는 촛불민심 등을 시정에 반영해 새롭게 이끌어 보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특히 윤 시장은 이번 물갈이 인사에서 그 어떤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전문가·적임자를 바둑과 원점에서 찾아내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기관별로 공모절차에 들어가 적임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등 5개 기관장은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임명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곳에 가까운 기관장 공모가 동시에 진행돼 인력풀 문제가 적지 않은 데다 퇴직 공무원 임명시 재기불이론과 관피아 논란과 또 다른 측근·정실인사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에는 전문성과 비전을 가진 젊고 참신한 차세대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모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칠주갑’ 명량대첩 9월 8일~10일 개최

명량 골든벨 등 체험프로 확대

명량대첩 ‘칠주갑’(七洲甲·60 갑자가 7번 반복된 420년)을 맞은 올해 명량대첩 축제는 오는 9월 8일부터 3일간 열린다.

재단법인 명량대첩 기념사업회는 16일 전남도청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축제 백미인 명량대첩 해전 재현을 위해 선박 동원이 용이한 시기, 행사 장소인 울돌목의 물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 명량대첩이 칠주갑을 맞는 정유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려고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량 골든벨, 이순신 장군 체험, 활쏘기 등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전 연출과 시나리오로 박진감을 높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명량대첩 축제의 BI(Brand Identity) 개발을 위해 다음달께 공모전도 열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태교방’ 설치...임신부 공무원 지원 확대

당직 면제·고정 주차면 제공도

전남도가 임신한 공무원들을 위해 ‘태교방’을 설치하기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외에도 당직 면제, 고정 주차면 제공 등 임신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사 지하 1층에

임신부 휴식공간인 태교방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기존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던 공간을 개조해 탈의시설에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샤워실은 태교방으로 만든다.

20㎡ 안팎 규모로 조성될 태교방에는 안락의자, 발 마사지기, 태교용 책 등을 비치한다. 청내 동호회 주도로 요가 프로그램도

런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대부분 수유실은 갖췄지만, 출산 전 공무원을 위한 태교방을 설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남도 본청에는 임신부 5명,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공무원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외에도 출산 후 1년까지 당

직을 면제해주고, 3살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3명인 직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임신한 공무원의 차량번호를 적어놓은 주차장 5면을 전용공간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고미경 전남도 총무팀장은 “사회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공공기관부터 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용자가 늘어나면 시설을 확대하는 등 임신부 배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파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담양 대덕 **호두농장** 특산품

◆ 식용호두 · 호두목욕 분양판매 ◆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호두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선명정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061-382-4728/010-3604-6712

삼가 인사올립니다.

지난 1월 10일 저희 어머님(故 竹林 李廷燦, 98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올립니다.

창황중에 알려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너그러운 해량을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와 성경책을 놓지 않으신 어머님(故 竹林 李廷燦).
인자하시고 순수하시고 남을 배려하시는 어머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겠다고 자식으로서 늦은 다짐을 해봅니다.

설을 맞아 가내 평안과 행운을 빕니다.

2017년 1월 17일

아들 박종오 며느리 권혜련 손자 박남주
딸 박현선 사위 신형식
박영의 정인기 올림